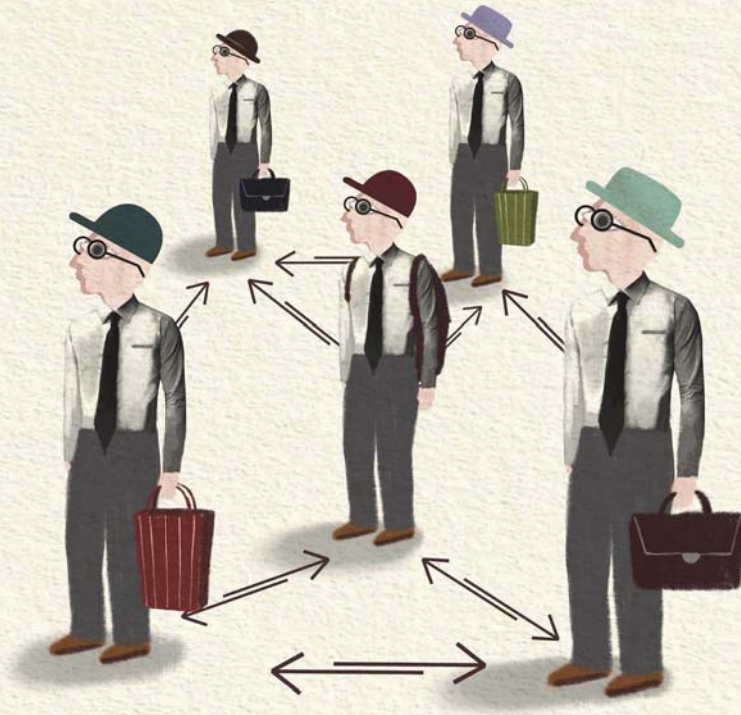


관계가 사라진 비전

신동열 (소명교육개발원 대표)



“네 비전은 뭐니?” 중학교 3학년 아이에게 질문했다. 아이가 답하길, “10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차를 타고, 매년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원하는 전자제품은 다 사는 것이요.”란다. 가슴에 넘쳐나는 말인지 망설임이 없다. 빠지지 않고 착실하게 교회에 출석해온 아이이며 그 부모님도 교회에서 주요 직분을 맡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비전은 비기독교인과 다르지 않았다.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많이 가지라’, ‘세상이 인정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의 비전이 어느새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가슴 속에도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유와 세상의 인정, 그리고 감각적인 삶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요소들은 크든 작든 모든 사람들의 삶에 나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관계가 담겨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란 무엇인가? 관계란 나와 타인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 공간은 보이는 어떤 공간보다 사람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 특강 때 간혹 옆 사람을 향해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하게 한 후, 자신과 옆 사람 사이에 있는 공간의 느낌을 경험해 보도록 한다. 거기에는 어색함도 있지만 부드러운 숨털 같은 웃음, 좋은 냄새가 나는 우유와 쿠키 같은 따뜻함도 있다. 이어서 옆 사람을 표독스럽게 찌려보라고 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 사이에 어떤 공간이 형성되는지를 느껴보도록 한다. 사랑과 존중을 표현했던 공간과는 달리 긴장과 불쾌감이 감돈다. 특별한 감정 없이 찌려본 것이지만 이전과는 다른 관계의 공간이 되었음을 학생들은 충분히 느낀다.

관계를 만드는 것은 능력이다. 누군가는 다른 이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지만, 누군가는 지저분한 관계를 맺기도 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타인 및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라고 가르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과 법령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예수님의 말씀(마 5:43-44),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바울의 가르침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거룩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문제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에 이러한 관계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의사가 되고자 하는 청소년이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고 하자. 하얀 가운에 목에는 청진기를 두르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그런데 의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까? 환자들이다. 환자 중에는 가난한 이들도, 못 배워서 의사의 말과 의료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죽음을 맞는 환자들도 있다. 의사의 비전은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되어 이런 다양한 환자와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또 다양한 의료 관계자들 곧 병원, 제약회사, 의료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국가 관리들과도 관계를 맺을 것인데, 이들과 더불어 정직과 공의가 반영되는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비전일 것이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어떤 직업을 통해 얻게 될 자신의 삶의 모습은 상상해 보지만 그 속에서 어떤 관계들을 맺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관계가 사라진 비전은 세상이 가르치는 비전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비전에서 관계가 사라진 이유

학생들의 이기적인 죄성으로 그들의 비전에서 관계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한 평가가 아니다. 학생들을 둘러싼 환경들이 관계를 고려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첫째, 청소년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있다. 그들은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려 경쟁에 임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된다. 자신의 계층과 무기력함과 싸우고 자신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민감하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거나 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경쟁이라는 환경의 결과로 인해 청소년들이 깊은 관계를 경험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깊은 관계란 마음과 마음이 또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기능적인 관계는 소비와 공급, 의무와 행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학원에 다니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에게 학과목을 교육받지만, 정작 그들의 꿈과 소망, 슬픔과 아픔 등은 접해 볼 기회가 없다. 학원비를 냈고 그 대가로 교육을 받는 소비적 관계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가정에 있을 수도 있다. 자녀들에게 의식에 대한 의무를 다할 뿐 서로 마음과 감정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들도 간혹 있다.

상황은 교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들에 대한 청소년들의 냉소도 그렇지만, 공부에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안쓰러워서 무엇을 더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폐성향의 청소년들도 나타난다.

세 번째, 청소년들은 개인이 어떤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해지는 성공 이야기는 많이 접하지만, 개인의 수고로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지는 성공 이야기는 거의 접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비전은 사라지고 오직 나의 비전만 남게 된다.

이상의 이유들로 청소년들의 관계상상력은 매우 결핍되어 있다. 관계상상력이란 자신의 행동과 선택이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미리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 관계상상력이 결핍되면 우주의 중심에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며 자신이 좋으면 주변 사람들도 다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비전에서 관계는 사라지고 점점 더 자신의 욕망에만 충실하게 된다.

관계와 필요로 살피는 직업

관계중심적인 비전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관계적인 측면에서 비전을 교육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직업과 문화를 관계와 필요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다. 직업은 개인들에게 돈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다. 직업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관계 속에서 생겨난 것이다. 돈은 그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제공받는 것이다.

종종 청소년들에게 입고 있는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은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라고 한다. 물론 한 명도 없다. 우리 몸을 보호하거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즉, 누군가는 실을 만들고 누군가는 천을 만들고 누군가는 염색을 하고 누군가는 재단을 하고 누군가는 만들어진 옷을 운반해야 한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개입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인은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관계 속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면서 공존한다.

청소년들에게 장차 사회에 나가 어떤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음을 가르쳐야 한다. 사람은 어떤 직업을 통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으로 타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 만든 콘텐츠나 서비스가 사람들을 더욱 행복하게 만들 수도, 때로는 고통스럽게, 크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과정

을 이해시킴으로써 직업의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상품을 개발하여 공동체도 회복시키고 수익도 창출하는 회사나 경영자들이 적지 않다. 이들의 이야기를 청소년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직업이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일 뿐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기회임을 가르쳐야 한다.

다음 표는 직업 사전에 있는 다양한 직업들이 어떤 필요들을 채우는지 18개의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이 표는 실제로 청소년들에게 비전을 교육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직업을 갖는다면 세상에 어떤 필요를 채우고,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를 상상하도록 돕는다. 물론 여기서 영향력은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는 거룩한 관계를 말한다. 간단한 워크샵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특정 직업만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필요를 채우고 거룩한 관계를 맺고 싶은 지 세 개 정도 고르게 한다.

어느 대안학교에서 필요와 관계의 측면에서 직업을 바라보는 교육을 하던 중, 한 학생이 와서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일등을 해야만 세상에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잘 하지 못해도 제가 채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과정이 아니다.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세상과 거룩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특정 필요들을 채워나가는 비전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필요의 종류	내 용	기존 직업
01 이론정립	사물이나 문화 현상을 정의하는 필요	교수, 연구원, 철학자, 문화 평론가
02 원자재	문화 생산의 기초가 되는 기본 재료를 공급하는 필요	벌목공, 시추기술자, 광물 채굴자, 화공원료 가공자
03 에너지	문화 생산이 가능하도록 동력을 공급하는 필요	원자력·수력·화력 발전 종사자, 대체에너지 개발자
04 교육	문화 지식을 가르치거나 배우려는 필요	교수, 교사, 강사, 교육공무원, 동화작가
05 정보관리	문화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려는 필요	사서, 기록원, 리서치 기관 종사자, DB개발자
06 경영	문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필요	사업가, 지방자치단체장, 경영컨설턴트, 증권분석가
07 교류	각 문화들이 원활하게 소통하도록 돕는 필요	유통업자, 번역가, 통역가, 여행 가이드, 외교관, 부동산중개인
08 이익증대	문화의 생산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필요	투자분석가, 외환딜러, 광고기획자, 쇼핑호스트
09 예술	문화를 통해 품위 있는 정서를 경험하려는 필요	연예인, 화가, 음악가, 디자이너, 무용가, 인테리어 전문가, 모델
10 편리함	문화를 통해 불편함을 제거하려는 필요	교통관련 종사자, 가전제품 제조자, 발명가, 비서, 스튜어디스
11 자기표현	문화를 통해 자신만의 독특함을 드러내려는 필요	코디네이터, 의상 디자이너, 헤어 디자이너, 이미지컨설턴트
12 심	지친 삶에 활력을 얻고자 하는 필요	호텔리어, 펜션 운영자, 마사지 전문가, 여행기획자
13 건강	문화를 통해 몸과 정신이 탈이 없고 튼튼함을 지키려는 필요	요리사, 의사, 약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14 즐거움	문화를 누림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필요	작가,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종사자, 게임기획자, 마술사
15 안전	뜻하지 않은 위험으로부터 지키려는 필요	경찰관, 군인, 소방관, 경호원, 차량 정비사
16 환경	자연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필요	환경운동가, 국립공원 관리자, 환경공학자, 조경사
17 돌봄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을 도우려는 필요	상담사, 간호사, 간병인, 사회복지사, 특수교사
18 견제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재하려는 필요	NGO단체 활동가, 변호사, 기자, 정치인, 심판



신동열 총신대학교 신학과, 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다. 전 한국기독교학생회(VF) 간사(서울교대, 인천대 담당)를 거쳐 현재 소명교육개발원 대표이자 수서은혜교회 협동목사로 섬기고 있다. 『호플론 다이어리』, 『소명에 답하다』의 저자이며, 사랑의 교회 청년부 '소명아카데미' 주 강사, 현 드림국제학교 비전과목 주 강사 및 교육기획으로 활동하고 있다.